

다음 사항들은 종의치 장착후 환자들에게 일러 주어야 할 사항들이다. 종의치 장착후 환자를 그냥 보내는 경우가 있으나 반드시 다음 내용을 세심하게 주시시킬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종의치란 생체내에 장착되는 단순한 하나의 기계적 내용품(mechanical substitute)이기에 정확한 사용법 및 적응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구강내에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또한 한계성(limitation)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환자에게 강조해야 한다. 환자들은 자연치를 소유하고 있었을 때의 기능을 연상하므로 반드시 기계적 내용품으로서의 이러한 한계성을 강조하여야 한다.

1. 환자의 개인적 특성

환자들에게 각 개인의 전신적, 정신적, 또한 구강내 조건이 다르다는 점을 인식시켜야 한다. 즉 환자마다의 모든 여건이 다르므로 다른 사람과 대조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

2. 새로운 의치에 의한 안모의 변화

환자가 무치악 상태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히 오랜시간에 걸쳐서 이루어진 과정이다. 그러나 종의치 장착시에는 어느 한 시점에서 큰 변화가 오므로 근육의 긴장등이 와서 상당히 이상스럽게 보인다. 이러한 것도 어느정도 시간경과 후 근육이 적합되고 환자 자신이 자신의 안모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질때까지는 안모에 대한 평가는 하지않는 것이 좋다.

3. 저작

새로운 의치로 저작을 하려면 최소한 6~8주는 지나야한다. 즉 안면표정근과 저작근에 새로운 memory pattern이 형성되어서 이러한 p-

attern이 무의식적으로 자동화 되어야 한다. 특히 혀의 적응이 매우 중요하다. 연한 음식을 조그만 조각으로 해서 구치부를 저작하는 것을 연습시키고 양측성으로(bilateral chewing) 저작해야한다. 양측성 저작을 하는 이유는 bilateral balanced occlusion을 유지시켜 의치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의치 장착후 타액의 방출양이 많아지는데 이는 수일 경과후 원상태로 돌아간다.

4. 발음

새로운 의치의 변화에 대한 혀의 적응이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는 수주내로 적응하게 된다. 특히 상악의치의 구개면은 될수 있는데로 두께를 얇게하는 것이 좋다.

5. 구강위생

의치는 매 식사후 청결히 하여야 한다. 이때 일반치약을 사용하면 의치상인 레진을 빨리 마모시키므로 삼가하여야 한다.

6. 잔존조직의 보존

의치를 24시간 장착하는 것은 지지조직에 해가된다. 의치는 최소 하루에 6~8시간(수면시) 장착하지 않아 잔존지지조직에 휴식을 갖게끔 하여야 한다. 또한 의치를 장착하지 않을때는 의치를 물에 담가두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환자에게 의치는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구강내 상태가 계속 변하므로 이 변화에 대해서 즉각 보상을 하여야 한다.

즉 주기적인 구강검사가 필요하다.

崔鍾煥 치과기공소

서울·종로구 송인동 1081

전 화 : 93-6671 . 93-2998